

美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1991년도 국방 예산은 약 2백10조원(2천9백50억불)이다. 이는 지난 해보다 약 2% (4조2천억원)가 증가된 것이지만, 1991년의 예상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감소는 일반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연방예산과 무역적자로 인해, 국방비는 1985년부터 실질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럽에서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군 지휘관들은 전력규모나 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美 국방부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에 걸쳐 총 22%의 국방비를 줄일 계획이며, 현재의 지출삭감율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1990년 1월 의회에 제출된 국방부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 백악관이 작성한 금년도 지출계획보다 약 1조6천억원이 감소되었다. 이처럼 지출비용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병력의 감소와 불필요한 장비의 축소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 더많은 무기를 구입할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체니 국방장관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감축을 위해, 일부 사업계획 취소와 함께 병력감축 및 국방부(펜타곤)의 운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몇 개의 기지폐쇄와 10만명의 병력감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991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에는 육군 2개 사단 해체와 합정 2척의 퇴역, 그리고 해병 14개 포대와 B-52 폭격기 14대의 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부 사업계획은 구제되었다. 지난해 美 국방부와 의회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B-2 스텔스 폭격기와 개량 크루즈 미사일(1백기), 트라이던트 잠수함 및 트라이던트 II 유도탄(52기), 그리고 SDI계획에 대해

서는 45억불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여론과 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들로 인해 경비는 절약될수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계획들이 무산될 것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美 上院 예산위원회 James Sasser (민주당, 테네시주) 의장은 1991회계년도부터 1994회계년도 까지의 국방예산중 삭감해야할 8백60억불의 품목 리스트를 밝혔다.

여기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ADATS 방공대전차 장비, ATF 전술전투기, C-17 수송기 및 SSN-21 고속공격용 잠수함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예산감축의 여론을 쫓고 있는 체니

一笑一少一怒一老

“안살림 바깥살림”

어떤 사람이 출가한 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사위가 받았다.

「오, 자넨가? 지금 뭘하고 있나?」
하고 장인이 물었다.

『아, 네. 지금 아침 식사를 끝내고 설것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위가 대답했다. 장인은 집안일을 돕는 것은 좋지만, 사내가 설것이가 무슨 말이나며 딸에게 야단을 칠 생각으로 바꾸라고 했다.

『저... 나중에 전화드리게 하면 안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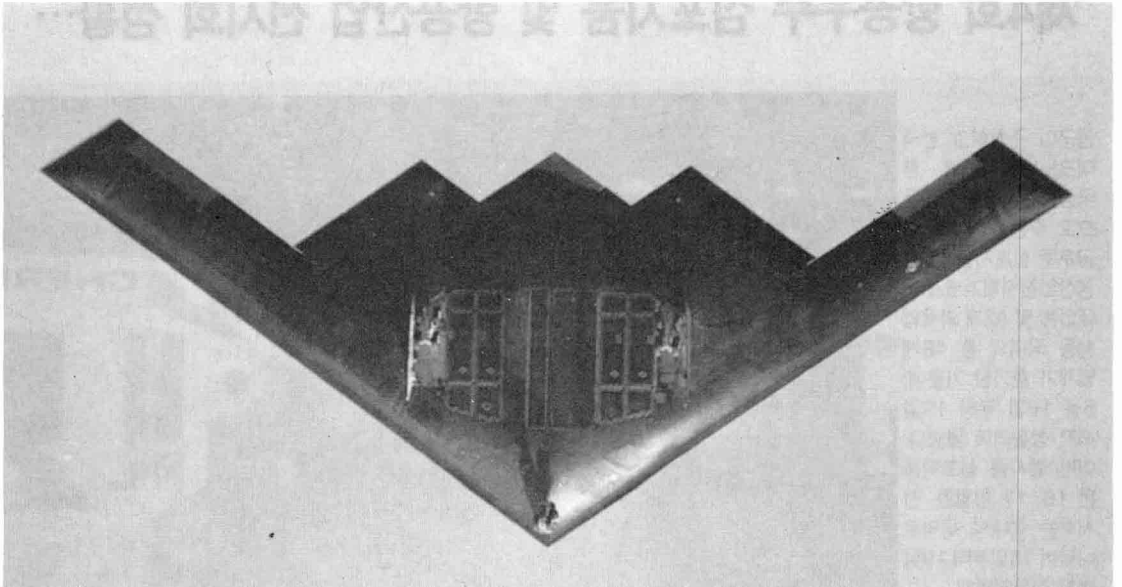
사위가 머뭇거리자 장인이 재차 다그쳤다.

「왜. 그애 어디 나갔나?」

『그게 아니라...』

하고 사위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천장이 새서 지붕을 좀 고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美 공군 차기 주력폭격기로 기대되고 있는 B-2. 체니 국방장관과 Sasser 예산위원회 의장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중 하나이다

국방장관의 지침과 Sasser 의장의 뜻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소련과의 약속된 감축이후 미국의 효과적인 전력유지에는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견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Sasser의장이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채 예산절감만을 강조하는 반면, 체니 장관은 예산감축의 현 추세를 한편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몇가지 주요사업계획에 예산을 우선배정하고 있다.

Sasser 의장의 삭감대상이 되고 있는 B-2, C-17, SSN-21 등에 대해 체니 장관은 강력하게 예산배정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체니 장관은 JSTARS, F-18, Blackhawk 헬기, CH-53, Superstallion 헬기, SH-60 대잠헬기, ATACMS 육군 전술유도탄, Stinger 유도탄, 브레들리 전투차량, Sincgar 무전기, M119 곡사포 개량계획등에 대해 1990년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체니국방장관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육군의 LHX와 N-LOS 계획, 공군의 ATF와 항공기엔진 부품

향상계획, 해군의 개량 공대공 유도탄계획이 속하고 있다.

금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공동연구개발 계획은 방공계획, NASP(National Aerospace Plane) 계획 및 장거리 재래식 Standoff 무기계획 등이다.

앞으로 체니 장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추측을 할수 없다. 上·下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체니장관의 예산안을 뒤집을 것이다. 이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동구권의 급속한 개혁등 세계 도처에서 변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확실성이 없다. 오늘의 군비감축과 화해무드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분명한 보장이 없는 것이다. 한가지 유념해야할 것은 역사적으로 볼때 평화시에 발생한 잉여재원은 사회복지에 더 많이 투자되기 보다는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더 많이 투자돼 왔다는 사실이다. * <Miltech 90/3>